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16위→24위 하락”



▲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작년보다 하락했다.

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이날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았다. 순위는 전년보다 8단계 하락해 167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합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9위(8.99점)에 오르며 유일하게 톱10안에 들었다. 일본은 8.33점으로 16위에 올랐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7.85점(30위), 북한은 1.08점(165위)을 받았다. 민주주의 지수 1위 국가는 노르웨이(9.81점)가 차지했다.

지난해 카드 1,000조 넘게 긁었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카드 승인액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31일 '경향신문'이 여신금융협회가 3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카드승인 실적 분석'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097조7,000 억 원이다. 카드 승인금액이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신용 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모두 합한 전체 카드 승인 건수는 256억9,0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9.9% 늘었다. 카드 사용실적 기준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출입국 규제가 완화되면서 숙박업소·음식점 등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한 데다가 항공사·여행사 등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인 영향을 받았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수속을 위해 줄지어 있는 여행객들. 사진=연합뉴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숙박·음식점업에서 매출 증가세가 유지됐고 국내·해외여행 활성화로 인한 운수업등 여행·여가 관련 산업 실적 증가 등에 힘입어 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늘어

난 233조1,000억원, 승인건수는 7.1% 늘어난 62억 1,000만건이었다.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49조6,000억원, 승인건수는 6.7% 증가한 3억9,000만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을 분기 별로 봤을 때는 4분기 들어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분기별 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1.2%, 2분기 14.8%, 3분기 15.1%에 달했지만, 4분기에는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흑산도에 공항 들어선다 … 2026년 개항 예정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일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서 공항 건설이 본격화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남도와 신안군은 이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하루 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은 공항 예정부지인 흑산면 예리 일대 68만3,000m²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흑산공항 조감도. 사진=전남도

계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 공항이 개항하면 흑산도에서 서울 김포공항까지 비행기로 1시간 정도가 걸린다.

전남도와 신안군 등은 강풍과 풍랑으로 여객선 결항이 잦아 흑산도 주민 3,500여명과 관광객들의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잦아 2011년부터 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예정 부지가 국립공원인 데다 절새들의 이동 경로로 확인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흑산공항이 건설되면 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이 확장돼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응급의료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며 "2026년 차질없이 개항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